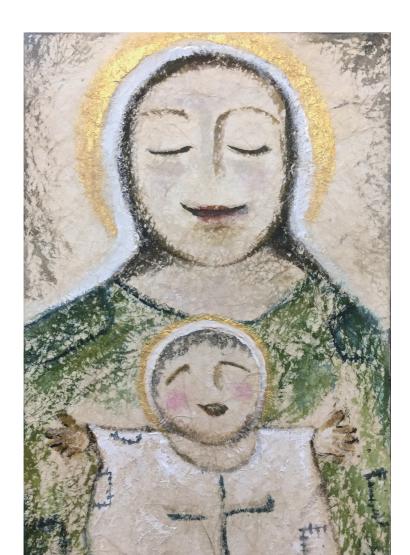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0 성모기 4 04







4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MILITIA IMMACULATAE

- 4월을 시작하며 *02* 기용기
-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06
 - 프란치스칸 영성 사랑 09
 -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 16
 - 주는 기쁨 *32*
 - 말씀묵상 *34*
 - 叫(知) 36
 - 소신학교 이야기 <u>38</u>
- 눈물범벅의 여인에게 다가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48
 - 함께하는 이모저모 54

"이제부터 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루카(4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4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라는 노랫말처럼 봄이 왔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4월의 자연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신록이 푸르러서 생명력을 뽐내는 여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움트는 계절이 더 생기넘치는 느낌입니다. 여름의 느낌이 활짝 핀 꽃이라면, 봄은 새싹입니다.

왜 부활이 아니라 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까 하실지도 모르지만, '부활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부활에 가장 부 합하는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온갖 생 명이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수난과 죽음을 이겨내 신 주님의 부활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기쁨과 활기로 넘 쳐흐르게 합니다. 성모 기사지를 통해 만나는 모든 분께 부활 인사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왜 축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했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기때문에? 만일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 우리는 아직 부

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단지 주님의 부활사건 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건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반갑게 건네는 부활 인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축하인사인 셈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가장 큰 척도는 신자 증가율의 감소나, 냉담자가 늘어나고, 수도성소와 사제성소를 지망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유럽 교회에서 나온 설문조사 자료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본다는 신자가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곧 실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위기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이 다른 모든 현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 14)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가톨 릭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축 하합니다"라고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부 활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 려 지금껏 환상을 쫓아 헛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요한 복음이 전하는 부활 사화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우리 역시 주님의 시신을 찾느라 무덤에만 머무르고 있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것 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한 세속 의 가치, 과거의 죄와 상처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 지 못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자라며 전 례에 참석하고, 본당에서 활동하고, 심지어는 수도자나 성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무덤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허공에 떠 있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무덤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찾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안에 계십니다. 동시에 가장 고통받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자비만을 청하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 천상의 가치들을 추구하 도록 도와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에게 기쁨과 활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 활하신 주님처럼 무덤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봄처럼 생 기 가득한 삶으로 부활을 살고,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살 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상승의 전기문학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한규희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구조

대전기의 구조는 학자마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4가지 구조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대기적 장들

1-4 성인의 회개부터 수도회의 설립까지

13-15 오상부터 시성까지

주제별 장들

5-12 성인의 거룩함과 덕들 (겸손, 순명 등)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대전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술된 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분석과 세 번째 분석은 각각 다음과 같다:

1-4 정화

5-12 조명

13-15 일 치 1-2; 5-7 정 화 3-4; 8-10 조 명 14-15: 11-13 일 치

두 번째, 세 번째 분석은 세 가지 길에서 다루어진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영적 상태를 적용한 것이다. 두 분석에 차이점이 있다면 세 번째 분석의 경우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을 종합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구조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네 번째 분석은 다음과 같다:

7가지 십자가 화시 / 발 현

1 1장, 3 (19-20쪽) 궁전의 환시

2 1장, 5 (21쪽) 십자가 발현

3 2장, 1 (24쪽) 다미아노 십자가와의 대화

4 3장, 5 (35쪽) 실베스텔 형제가 본 환시:

성인의 입에서 나온

황금십자가

5 4장, 9 (49-50쪽) 파치피코 형제가 본 환시: 십자가 형태를 띤 두 불칼. 성인의 이마에 새겨진 타우 십자가

6 4장, 10 (50-51쪽) 모날도 형제가 본 환시:

안토니오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린 성 프란치스코의 화시

7 13장, 3 (141-142쪽) 세라핌 천사와 오상

대전기에 대한 평가

평가는 크게 긍정/부정/제3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평가의 주된 기준은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상 또는 정신을 훼손하였는가이다.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인 평가는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의 참된 모습과 더불어 그의 신비 여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작품을 집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란치스칸 영성 - 사랑

최상유 막시모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

기도하는 삶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6)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성인은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마실 때나…"(1첼라노71) 언제나 하느님께 중단 없이 기도하였다. 이런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곧 기도였던"(2첼라노 95)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모두가 중단 없이 기도하기를 원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특별한 하느님 체험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성인은

중단 없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 직접 오셨으니 우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 문이다.

성인에게 있어 기도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구원사업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음률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하느님과의 일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프란치스칸 기도는 정적인 기도 즉, 감정을 포함시키는 기도이고, 자기자신을 비우고 사랑의 길로 감으로써 하느님과의 완전한일치를 목표로 한다.

"목소리의 음률보다는 마음의 울림을 깊이 살펴,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목소리는 마음과, 마음은 하느님과 화음(和音)을 이루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목소리를 곱게 내어 사람의 귀를 매혹하지 마십시오." (형제회 편지 41-42)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기도는 하느님과 마음의 일치에 있는 것이지 기도의 음이나 기도 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다.

정결한 삶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인은 마음의 깨끗함과 정신의 단순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이기적 욕구 를 억제하고 마음에 깨끗함을 지닌 영혼은 하느님과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온갖 장애를 멀리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그분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흠숭하도록 하십시오." (인준받지 않은 회칙 22,26)

정결의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정결을 보호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한 프란치스칸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포기가 나오고 포기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정결을 거스르는 유혹을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다. 어떤 형제가 정결의 유혹으로 고민하여 지도를 요청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형제를 깨끗한 사랑, 신뢰하는 사랑, 자아를 모르는 사랑의 분위기로 인도하였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마귀의 유혹과 육의 유혹 그리고 육 의 모든 두려움을 부끄럽게 합니다."(덕 인사 13)

태양 형제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옵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내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저들로써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품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 주나이다

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살아 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태양 형제의 노래(피조물의 노래)'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하느님 사랑이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고 이 사랑을 발견하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성인은 작은 풀과 풀벌레조 차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이러한 사 랑은 구별도 차별도 없이 모든 세상에 평등하게 존재한다.

그렇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도, 나를 미 워하고 싫어하는 형제도 하느님 사랑의 손길 위에 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사랑의 손길을 보았고, 하 느님과 일치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프란치스코 성 인은 지상 생활을 하면서도 천상의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 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아하셨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 형제들 안에도 동물과 식물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 더 나아가모든 우주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 이를 깊이 인식한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가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은 하느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있고, 그를 통해 보편적 사랑과 우주적 사랑의 신비로움이 이루어진다.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

권정대 베드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종속되고 참여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리에 따라 명백하고 깊은 언급을 담은 매우 풍성하고 가치 있는 신학을 성령과 연결하고 있다.

복되신 동정녀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동정녀에게 내려오시어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모성이 시작되게 하였고, 동정녀가 당신 아들의 형제자매들과 연대성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성령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과 마리아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고,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 담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 일치 신학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령의 거처가 되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 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 어머니로 인정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신다. 당신 아드님의 공로로 보아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아드님과 불가분의 긴밀한 유대로 결합되시어,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신다. 이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훨씬 앞서 계신다."(교회 현장 53항)

마리아가 성령의 궁전이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첫 순간부터 성령과 함께 하는 거룩하신 분이심에 대한 고백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란 호칭은 결국 '성령으로 가득하신 마리아님'에 대한 고백이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었으니, 그녀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마리아는 당신의 '예'라는 응답과 동의와 협력으로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는데, 이는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활동 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리아 성성(聖性)의 원천은 성령이시지만 마리아의 성성은 결코 수동적으로, 그냥 주 어진 그대로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능동적으 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성령과 함께하셨기에 나온 것이다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전 생애에 걸쳐, 특히 인생의 중요

한 시점에 인도하셨다. 먼저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이 되실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원죄의 유산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셨는데, 이는 "성령을 통해 지상 출산의 질서에 따라당신 자신이 어머니로서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신성에 참여를 뜻하는 은총의 질서 안에서 생명을 받으신 것이다."(17항) 그리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의탄생 예고를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부터의 은총이 함께하였다. 마리아의 첫 이미지가 성령의 이미지, 곧 영보(領報)였고, 그것은 인류 최초의 성령강림이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찬가(Magnificat)를 노래하였다. 이후 성령께서는 그 아들 예수가 성장할 때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누구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마리아와 함께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 마리아는 성령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고, 그 시간을 견뎌냈으며, 하느님께 "예"라는 응답을 드림으로써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 마리아는 예수의 승천 후(성령강림 때) 다락방에서 아버지 하느님께 당신의 영을 보내달라고 12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이 세상살이를 마치시고 영 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어 높임을 받았다. 이에 우리 는 성령께서 마리아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고 변화시켜 주 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그 육신이 썩지 않게 하셨다 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교부들과 작가들은 성령의 거처가 되셨던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하느님의 뜻을 수락한 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참아낸 용기가 모두 성령께로부터 비롯한 것이다."(마리아 공경 26항)라고 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마리아는 벌써 자신의 지상 생활에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특별히거룩하셨던 분이시고, 성령의 현존으로 철저한 변화를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신 마리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신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 신적인 약속의 순간이 첫번째 성령강림이니, 하느님 아들의 육화를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신 것이다.

수에넨스 추기경은 구원사에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기 위하여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라는 말씀만 있

으면 족하다면서 마리아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에 말하자면 중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명과 육화의 첫새벽에 마리아는 하늘과 땅 사이의 교차점이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까지 끝없이 뻗어오는 하느님의 사랑이시며,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의 전권사절(全權使節)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성령께서한낱 피조물인 마리아를 들어 올리시어 바로 당신을 만날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신경의 고백처럼,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마리아를 감싸 안고 계시는 바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분은 시초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역사 안에서 계시하신분이시니, 이제 때가 차자 하느님의 아들이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의 품에서 육신을 취하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루카 1,35) 교부들은 마리아가 하느님께 응답을 드렸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과 같은 인간을 형성하 였다고 가르쳤다. 마리아 안에서 성부의 자비로운 계획을 실현하신 성령 께서는 마리아 위에 내려오셨고, 마리아는 성령의 충실한 정배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한 순종을 드러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셨고, 그리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파견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에 협조하셨다.(26항)

하느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것은 마리아와 성령 사이의 완벽한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일이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셨고,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조금의 저항도 없이 말씀이 현존하게 하셨던 것이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역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시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것과 연결하셨으며,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총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성령을 모신 분으로, 자신의 거처로 만드셨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전적으로 변화되셨기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셨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 가운데에서, 성모 마리아를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이를테면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라고 부르던 관습이 널리 퍼졌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회 현장 56항)

결국,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싸심으로써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교회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신 마리아를 '그리스도 지체들의 어머니'로 고백한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며,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교회 현장 53항)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복되신 동정녀는 복음 선포의 힘 안에, 곧 지속적인 성령강림의 상태 안에 계시니, 성령께 서는 마리아를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의 어머니 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으심으로써 전 인류에게 생명을 선

사하였다. 곧 예수는 당신 지상 생활의 첫 순간부터 자신 안에 전 인류를 감싸 안고 계셨다. 누구보다도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세례자들을 품고 계셨다.

그분은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삼으신 것이다. 만일 동정 너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하고 낳으셨다면,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사람을 잉태하고 낳은 것이라 할수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낳으신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 곧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마리아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로 맡기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당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 사도들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하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와 드러나지 않은 생활기간의 유일한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승천하여 아들 곁으로 오르신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아주신다. 마리아는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교회의 구성원 안에 낳으실 수 있게 되셨는데,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이

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성령 덕분에 마리아께서는 영원토록 모든 신자, 그리고 신비적 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낳으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은 주남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한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교회 현장 62항)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신 마리 아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며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신다. 마리아의 모성,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역할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미치는 것이며, 세상을 위한 그녀의 전구는 지금

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만인에게까지 확장된 마리아의 모성의 원천은 다시금 성령이시니, 구원의 질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고, 그 모든 업적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영원한 계약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졌으며, 그리스도 육화의 각 단계에함께 계신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이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화하신' 분은 바로 이 영이시다.

마리아는 특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 마리아 안에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걸작을 빚어내셨다. 마리아는 성령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교회는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인하여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행하신 바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증인이 된다.

성령의 도구이신 마리아

성령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게 하는 힘을 '영화(靈化)된 인격'을 통하여, 곧 성령으로 변화된 그 어떤 사람을 통 하여 퍼지게 하는 분이시니, 마리아는 성령의 도구로서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성령을 모시게 하는 '성령의 전달 자'(Pneumatophorin)이시다. 벌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을 최초의 성령강림으로 본 쟝 귀똥은 이렇게 말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인사했다. 마리아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순간에 활동하셨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는 주님 앞에서 감격했다. 이미예수께서는 성령의 도구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전달하셨다. 그것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첫 모습이었다."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을 전달하는 분이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변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곧 마리아는 인간이 '그리스도화'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은 물론이고 예수 교회의 출생에도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경우는 모두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중재하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의 활동하심을 대신 간청하는 역할을 하신다. (교회 현장 59항) 마리아의 이러한 중재는 그녀가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실 때잘 드러난다.

영광 중에 계신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 하고 계신다. 그녀는 만인을 위한 중재자, 대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힘쓰는 분 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협조자, 그리고 위로자이시듯 마리아도 그러하다.

성령의 짝, 성령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는, 성부가 당신의 영을 교회에 계속 보내주실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과 더불어 마리아는 "주님, 오소서"라고 말하며, 그녀의 자녀 중 마지막 자녀까지 성부의 집에 들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명은 은총을 하사하는 서열에 있지 않다. 영만이 홀로 또한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使 者)이시다. 마리아의 자리는 중재자로서가 아니다. 마리아 의 역할은 우리의 대답과 관련된다. 마리아와 결합하여, 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는 데 도움을 받는다.

마리아를 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리아와 결합하여 성령과의 통교를 체험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안에 그리 스도를 형성하고 계시는 성령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 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에넨스 추기경은 "우리 는 마리아를 들이쉬고 성령을 내쉰다. 전망의 끝은 언제 나 같다. 예수를 세상에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영의 비추심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새 로워진 최초의 성령쇄신 운동가"로 표현하면서 다음의 말을 소개하였다.

"마리아를 체험함은 성령의 가장 고귀한 선물 중의 하나이다. 마리아는 인격으로 드러난 성령의 은사이다. 마리아로부터 나는 보다 순수하게 믿는 법을 배우고, 더욱 분명하게 영을 식별하는 법을, 말씀을 보다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보다 창조적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성령과 마리아 안에서 교회 일치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는 순례의 모범이신 마리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유일한 주님께서 바라셨고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이 (묵시 2,7; 11, 17) 그토록 갈망하는 일치로 이끄실 것"이라고말한다. 이것이 교회의 여정, 우리 시대의 교회 여정의 특징인 일치 운동이다.(30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에서 개혁 교회의 그리스 도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이란 테마에 진정한 신앙생 활의 본질적인 내용을 성경 안에서 파헤쳐 그 참뜻을 밝혀 줌으로써 갈라진 형제들과 가톨릭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 점이 있음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는 마리아의 십자 가 발치의 현존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초대를 역 설하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느님의 가족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의 힘에 의해 동정의 품 안에 잉태되셨던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한 분이신 주님께 대한 신앙의 증인들을 '앞서가시는' 그분을 우리의 공동 어머니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30항)

교황은 또한 교회 일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 하는 모든 사람의 일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당신의 수난 전 에 이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35항)

교황은 교회의 전승 안에서 다양하게 전해진 풍요로운 찬미가 중에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가 믿음의 순종과 기쁨을 일깨운다고 보았다. 또한, 한 분 그리스도의 구원 과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 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삼위이신 하느님과 그리스 도 안에 일치를 이루는 마리아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일치의 척도가 됨을 언급한다. 회칙「구세주의 어머니」의 교회 일치의 주요 관점은 교회를 위한 마리아의 영적 모성의 관점이었다.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물리적 모성을 초월한다. 하지만 영적 모성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 반론들은 성경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곧 마리아의 영적 모성은 성령의 작용을 대치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죽은 이들의 잠(Dormitio)에 대한 이론이었으며, 그 외에는 그리스도교 종파 간의 마리아론적 대화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련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회칙은 천상 교회와 나그네 교회와의 구원적 연대성을 고찰한다

또한, 마리아의 구원적 통치와 연관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성령의 자리에 앉힌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령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마리아에 대해 말하고 '협조자'(Paraclitus)대신 위로자나 변호자에게 호소하며, 아버지와 예수의 영 대신 공동 구원자에 대해 말하거나 하느님의 '손가락' 대신 중재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언제나 성령의 작용으로 여겨졌다. 이 점에 있어 "하느님의 성전이었지 성전의 하느님이 아니었다"(erat templum Dei, et non Deus templi)라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확고한 개념 규정이 등한 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영적 모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는 성령에서 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마리아의 특질이 성령의 특질과 유사한 경우, 반사된 빛이 반사하는 빛과 관계를 맺고 결과가 원인과 관련되는 것처럼 전자는 후자를 가리킨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종속성을 고려한다면, 마리아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질은 성령의 영광을 증가시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마리아의 인격과 연결된 성경 신앙의 증거를 생생하게 지속시키고 옛날 동방 교회의 마리아 신심의 예를 들어 호소하여 영신적인 타당한 정점을 향한 신학적 대화를 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에서 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기도와 생활에 젖어 있었다. 교황은 이러한 환경이 현대에 적게 적용되어 있는 곳에 더욱 깊은 신학적이고 영신적인 영감으로 재일치의 대화와 연구가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주는 기쁨

박영철 요셉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내어놓는 것이 아닐까요 나를 표현하고, 너를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가 아닐까요 나를 내어놓음 없이 벗이 내놓기 원한다거나, 벗의 내어놓음 없이 나의 내어놓음 없이 나의 내어놓음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요

나는 어느새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들어오면 내 손으로부터 떠날 죽은 모릅니다.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소유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북안에 나를 묶어 놓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움이 바로
주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내어놓음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나를 온전히
내어놓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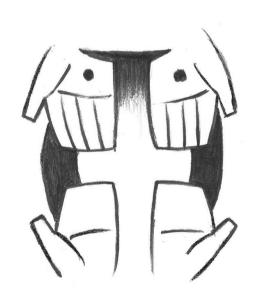
내은 벗이 속옷을 원하면 친히 겉옷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내의 사랑스런 자녀라 자처한다면 사랑이신 님은 닮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는 기쁨에서 님은 만나 뵈옵시다.

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이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 20,27)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마태 8,13)

미지 (未知)

김종국 요셉

하느님께서 저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알수 없었어요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그렇게 오셔야만 하셨는지요?

잡혀가실 예수님은 모른다는 제자를 어떻게 수제자로 삼은 수가 있어요?

해관 터의 죽음에 실망하고 도망치듯 떠나가던 제자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지요?

부활하시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서 못난 제자들에게 "와서 아 침은 먹어라"하신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부할하신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요?

어느 성체조배실에 나타나셨다는 것도 믿기지 않아요

러시아 창공에 구름으로 보이는 형상은 구름일 뿐이에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주님은 만나러 여기저기 다녔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생명은 불어 넣으시는 주님의 숲과 성체를 통하여 조금 은 알겠어요

주님 안에 머물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아도 좋아요.

죽임은 당하시고도 저희른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통 감싸고 있어서요

"주 너의 하느님은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은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 몇 하가 너희와 함께!'

소신학교 이야기

신재희 베드로

소신학교 교장인 안투 수사님께서 소신학생들과 함께 뛰어놀며 농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다. 예전에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쳤던 김욱 다윗수사님을 떠올리신 것 같다. 운동이면 다 좋아하는 나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다. 신나게 놀아볼 생각에 농구수업 첫 시간, 소신학생들과 무작정 시합을 했다. 의사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얼마나 거칠게 경기를 하는지, 농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경기 도중에 싸움을 말리고 안 다치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결국에는 한 명이 공을 빼앗으려는 형제의 팔꿈치에 맞아 입술이 터지는 사고가일어나고 말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달리고 노는 씩씩하고 활기찬 소신학생들의 모습에 나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운동하고 나면 무척 목이 말라 물통에 있는 물을 벌 컥벌컥 들이켠다. 그때면 소신학생들이 몰려와 키득키득 웃는다. 그리고는 내 얼굴의 땀을 손가락으로 찍어본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 또한 재미난 모습에 가 만히 그들에게 나를 맡겼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해소되면 기분이 참 상쾌했다. 더운 날씨이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불어오는 살랑바람에도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즐거움과 고마 움을 찾는 방법을 이곳의 자연환경과 소신학생들이 가르 쳐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즐 거웠다.

내 친구 진더쉬

하루는 소신학생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제일 큰형으로서 나와 동갑내기 형제인 진더쉬가 나를 찾아와 함께 마을에 다녀오자고 하였다. 그 형제는 늦깎이 성소에 대한 부르심 에 인도관구에 허락을 받고 소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영 어를 비롯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였다. 함께 쌀 자루를 짊어지고 자전거 뒤에 앉아 마을 방앗간으로 가면 서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형제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논과 밭을 달려 마을로 가는 길에 접어드니 꽤 큰 힌두 교 사원이 보였다. 진더쉬 형제는 예전에 힌두교의 사두 (sadhu, 힌두교의 고행수도승)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을 지나다가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가

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성당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전례 봉사자로 활동하다가 사제의 꿈을 키우게 되 었다고 말하였다.

쌀가루를 만들어 소신학교로 돌아오는 동안 진더쉬 형제가 성령 찬송이라며 왠지 구슬픈 느낌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지만 수준급의 노래 실력에 자신의 종교적 심성을 담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신학교 뒤편 숲길을 산책하면서 형제애를 쌓았다. 어느 날 진더쉬 형제 가 나에게 물었다. "베드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 느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잘 모르겠어."

비쩍 마른 큰 키에 큰 눈을 껌벅거리는 진더쉬에게 뭐라고 말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더쉬가 하느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때 너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하느님께서 진더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이해한 것 같았다. 소신학교의 과정은 3년이지만 늦은 나이에 들어온 이 형제는 참사회의 결정을 통해 1년 과정만 마치고 수련 전기에 들어가게 되다

진더쉬와 나누었던 대화는 사실 모든 소신학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15살에 부모님과 떨어져 소신학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거친 후 1년 동안의수련 전기에 들어간다. 그후 본격적인 수련기 1년이 끝나야 비로소 첫 서원을 하게 된다. 20살이 되면 신학교에 입학 하는데 신학교 철학 과정을 다니며 유기서원수사로 3년의 학업 시간을 보낸 후 학교를 휴학하고 관구본부에들어와 사도직 실습을 1년 동안 하게 된다. 서원의 허락이떨어지면 종신서원을 한 뒤 신학과 과정을 3년 동안 밟는다. 이렇게 총 12년이 지나야 한 명의 사제가 수도회와 교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 인도에서는 단순히 학업을 목적으로 소신학교에 들어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현재 53명의 소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이곳 소신학교 학생들과 수사님들과 함께 성체 강복 시간을 가졌다. 진더쉬 형제의 찬양을 시작으로 예 식이 진행되었는데 매우 경건했다. 사제는 복사들과 함 께 향을 들고 분향한다. 수도원의 모든 방문을 활짝 열어 둔 후 경당에서부터 시작하여 방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머물고 잠자는 곳까지 분향하는 그 모습이 색다르면서도 참좋았다.

예식이 끝나고 방에 돌아와서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을 깨우쳤다. '경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녔던 그 마음 그대로를 내 방으로,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지니며 살아가자.' 성체강복의 시간이 끝나고 방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가득 배여 있었다.

"예수님 항상 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가 우물에 빠진 날

이곳에는 어미 소와 송아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새 끼돼지 일곱 마리, 닭 스물네 마리, 앵무새 두 마리에 개두 마리가 있는 동물 농장이 있다.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주는 소가 어느 날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우물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금세 허물어진 3미터 높이의 꽤 깊은 웅덩이였는데 소가 그 근처에서 풀을 뜯다 빠져버린 것이다. 참 난감했다. 소를 들어 올릴 기중기가 마을에 있을 리 없었다

어떻게 하면 소를 꺼낼 수 있을까 상의하다가 우물이 깊고 좁으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을 파 내려가 경사를 만들어 소를 꺼내자는 의견을 냈다. 안투 수사님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찬성하셨다. 모든 소신학생이 충동원되어 삽 몇 자루에 의존하여 땅을 파 내려가기 시작했다. 꽤오랜 시간을 파 내려가 경사진 비탈면을 만들어 소를 밧줄로 묶어 끌어올리려 하는데 소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가까스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저 멀리서 송아지가 울고 있으니 어미 소가 힘을 내어 기어 올라온 것이다. 참 감동을 주는 스토리이지만 부러진 다리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가톨릭 교세가 강한 남인도에서는 소를 그렇게 신성시하지 않기에 소고기를 먹는다. 앞으로 얼마 동안 신학생들의 육적 양식으로 그 소는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받아간 인도 비자는 여행자 비자였기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비자 연장이었다. 90일 이후 인도에서 출국하여 주변 국가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인도관구 본원으로 돌아와 다니엘 관구비서 수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베드로, 그건 불가능해.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인도에 오기 전에 비자에 대해 알아봤을 때는 분명 주변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는데…. 순간 당황했지만, 나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아니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거예요! 인도관구가 진출해 있는 스리랑카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비자를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다행히도 다니엘수사님은 스리랑카로 갈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다.

방에 돌아와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이 머 릿속에 맴돌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 기 싫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인 도 선교체험을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가방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찍혀있는 비행기 표를 꺼내보았다. 인생 전체를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1년의 선교체험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난이곳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가만히 비행기 표를 바라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묵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묵상의 주제는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왕복표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차

표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처럼 '몇월 며칠 입국' 이라 적혀있지는 않다. 비록 돌아갈 그 날 그때가 언제인 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표를 사용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 잊지 않기 위해 가끔씩 꺼내서 볼 것이다.

묵상이 끝난 후, 비행기 표를 가방 깊숙한 곳에 잘 넣어 두고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리고 인도관구가 진출해 있는 스리랑카로 선교체험과 비자 연장이라는 사명(?)을 안고출발했다. 일정을 헤아려보니 그곳에서 한 달 가량 지내다가 인도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금세 콜롬보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행히(?) 싸이먼 수사님이 마중 나와 계셔서 그분과 함께 수련소가 있는 공동체로 향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인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나라였다. 차 창 밖 풍경을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수도원에 도착했다. 사 진으로 봤던 것처럼 잘 꾸며져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가니 창문이 안 열리는 컴컴한 공간과 쾨쾨한 곰팡냄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벌레들과의 싸움을 직감할 수 있었다. 냄새보다 더

독한 모기와 빈대 탓에 2~3일이 지나자 온몸에 빈대에 뜯긴 자국이 생겼다. 베드벅(BedBug)이라 불리는 무서운 놈들에게 물리면 그 가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기야 천장에 붙어있는 팬을 돌리면 그나마 덜 물리는데 빈대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빈대들은 내가 피곤해 쓰러져 누울 때를 기다렸다가 내 몸을 뜯기 시작한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가렵고 붉은 반점들이 여기저기보인다. 끊임없이 덤벼드는 빈대들에게 뜯기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대청소를 했다.

그래도 며칠째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싸이면 수사님 도 그런 내 모습에 안쓰러워하셨다. 병원에 가보자고 권 하셨지만 우선 해변에서 일광욕을 해보기로 정했다. 수도 원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해변으로 향해서 바닷가 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록 에메랄 드빛 바다가 아닌 흙빛의 바다였지만, 탁 트인 넓은 바다 에 출렁이는 파도까지 함께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행복했 다. 물에서 나와 일광욕을 한 후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효 과가 있었는지 다행히도 그날 저녁은 가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온몸이 그을려 따끔거렸다. 묵주기 도를 바치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기 전 다음과 같 이 기도했다 "성모님 저는 바다가 정말 좋아요….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기분에 더더욱 날아갈 것 같았어요. 성모님과 같이 넓은 바다에,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고계속되는 파도는 당신의 기도를 닮았어요. 저는 오늘 그속에서 빈대에게 물린 가려움이 나았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눈물범벅의 여인에게 다가오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연희 플로렌스

부활 대축일 저녁에서야 디아나가 온라인 메신저에 있 길래 부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디아나는 이혼 문제로 해 결해야 할 몇몇 사항들이 전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처 리가 되지 않아서 거의 1년이 넘게 고통 중에 있었다. 하여 선뜻 인사 안부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젠 수도 토 르사븐의 비싼 월세를 피해 차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다.

이날 저녁엔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 하나를 이야기하면 서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 들어 40일 정도 병가를 냈다기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통 화하자 했더니 아이들이 옆에 있어 어렵다며 손으로 쓰기 를 계속했다. 끝이 없어 보이길래 어떻게 끝내나 싶었는 데, 눈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지금으로선 우는 게 네게 필요하다. 그러나 울면서도 주님을 찾는 걸 잊지 말아라.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울면서 찾아 다니다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게 되었다."

이 말이 힘이 되었는지 생명을 주는 말에 고맙다며 좋은 밤을 기원하며 끝을 맺었다. 생각지도 못한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웠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실망과 의심, 눈물과 두려움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분을 애타게 찾아 나서느라 피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었는지 반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더 강하게 생겼다.

이런 희망과 믿음에 대한 응답인 듯 어렵게 디아나를 만날 수 있었다. 4월 25일 국경일이라 유치원이 쉬는 김에디아나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물었을때는 아이들이 자신의 집에 있을거라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24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수녀원에 들를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막내 딸이 토르사븐에서 모임이 있는데, 데리러 가기 전에 잠깐 들른다는 것이었다.

메신저를 통해서 나눈 디아나의 소식은 은근히 걱정을 안겨 주었는데, 직접 보고 자세한 이야길 듣고 나니 그래 도 나았다. 이야길 나누다가 가끔 눈시울을 적시는 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다니던 교대의 마지막 논문도 쓰고 있다 하니 용감한 여인과 엄마의 모습이 보여서 조금은 안 심이 되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올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안 되니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단다. 마침 이날 한국 수련원에서 받은 부활 카드에서 3년전에 부산에서 만난 디아나의 이름이 적힌 걸 보여 주었더니 놀라운 감동을 받은 듯 했다.

다음 날은 휴일이고 디아나를 만난 후의 가벼움으로 늦은 엠마오 나들이를 할 겸 도시락을 싸 들고 이 섬의 가톨릭 유적지인 Kirkjubøur(직역: 교회의 들판)로 향하는 버스에 오전 일찍 몸을 실었다. 눈으로 덮인 높은 지역을 지나목적지에 다다르니 온종일 볕이드는 들판은 푸르기만 했다

바닷가 마을이라 바람은 강했지만 바람막이가 되는 커 다란 바위 앞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으니 햇살이 뜨겁게 나 의 온몸을 감싸며 맞아 주었다. 커다랗고도 두툼한 자연산 돌로 지어진 중세시대의 성당*은 너무나 추워서 따뜻한 대 기실에 들어가 몸을 데운 후에 들어갔지만 창문으로 들어 오는 햇살이 강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치 부활 장식으로 사용한 성경 구절이 들려오는 듯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에페 5. 14)

엠마오의 길에서 내게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 님께 감사와 찬미를….

^{*} 현재 루터교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프란치스칸 화요 신앙 특강 신청 안내

- 기 간: 2018년 4월 10일 6월 12일
- 일 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중식 제공 40분 수업 - 20분 휴식 - 40분 수업
- **장 소**: 한남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대강의실
- 강사진: 강주현, 한규희, 김용기 수사
- 강의 신청 접수 및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
- **강의료 입금 계좌**: KEB하나은행 352—910019—52504 천주교꼰벤뚜알성프란치스코수도회 (반드시 입금자를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해 주세요!)
- 강의료

1,3회차: 각각 7만원 (3주 강의)

2회차: 5만원 (2주 강의)

● 강의는 선착순 5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회차	일 시	강의 주제	강 사	비고
	4/10	구원의 역설	강주현	관구 연피정
1	4/17		(사도 요한) 수사	
	4/24			
	5/1 (노동자의 날)	휴 강		
2	5/8	무엇을 위한 권고인가?	김용기	
	5/15	(복음적 권고의 이해)	(대건 안드레아)수사	
	5/22 (석가탄신일)	휴 강		
3	5/29		-17-1	
	6/5	프란치스코와 보나벤뚜라	한규희 (보나벤뚜라) 수사	
	6/12			종강미사

부천지구 나가사키 성지순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천지구 기사회원들과 김종윤 사도요한 수사는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를 갔다 왔습니다. 참가 자들은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을 기리면서 창 립자인 콜베 성인을 본받 아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 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 이 다졌습니다. 이들의 각 오가 변치 않도록 원죄 없 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 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 드립니다.



작은 꽃모임 동계피정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혜화동 성모기사회 본부에서 청년 모임인 '작 은 꽃모임'의 동계피정이 있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 코 수녀회의 김석화 골롬 바 수녀, 꼰벤뚜알 프란치 스코 수도회 진동길 마리 오 수사와 최우식 프란치 스코 수사의 지도로 이루 어진 이번 피정을 통해 작 은 꽃모임의 활성화를 기 대합니다.



착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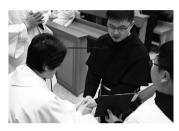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저녁기도 때 류승우 라우 렌시오, 서상원 이문우요 한, 박종광 비오 세 형제 가 착복식을 대구 원죄 없 으신 성모 수도원에서 받 았습니다. 수도자로 부르 심을 받은 이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수 련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서원식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새벽미사 때 김기헌 대건 안드레아 형제가 첫 서원 을 대구 원죄 없으신 성모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이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의 양 식에 따라 주님께 서원한 바를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서원식









2018년 2월 9일 금요일에 김민석 안젤로, 신재희베드로 두 형제의 종신서원식이 대구 원죄 없으신성모 수도원 프란치스카눔에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헌한 이 형제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함께 교회에 봉사하는 수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성모기사회 통장 정리를 합니다

관구법인 이름 통장 외 기존 개인이름 통장은 모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회원 중에서 수사님 개인이름 통장(이태영, 박영철, 황광우)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O2-745-61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031601-04-200636

농 협:317-0007-3146-21

신 한:140-012-038430

우 리:1005-803-349775

우체국: 102566-01-005494

하 나: 274-910011-99204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140-002-932457

국 민: 026-01-0344-810

지 로: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140-009-830476 농 협:301-0116-9633-21

국 민: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ни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부 산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대 구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053-636-7427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부 산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7 ス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전 주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ح (اد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제 주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 1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031601-04-200636 농 협: 317-0007-3146-21 신 한: 140-012-038430 우 리: 1005-803-349775 우체국: 102566-01-005494 하 나: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4월 통권 495호

발 행 인:정진철 편 집 인:구원모

편 집 장: 윤지영

편집위원: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 집: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 쇄:명 조

발 행 처: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 화: 02-745-6134 (사무실)

팩 스: 02-745-6135 홈페이지: ofmconv.or.kr

전자우편: mikorea@catholic.or.kr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